



2016년 3월 17일 목요일(음 2월 9일)

제152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4.13 총선 D-27

도내 총선 공천 이번주 내 결말 예상

새누리, 가장 먼저 후보자 발표

더민주, 남은 군산 등 4곳 중 익산 갑, 오늘 경선 결과 발표

국민의당은 3곳만 단수 확정 나머지 5곳은 경선 중

각 정당이 이번주 내로 도내 10개 선거구에 대한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예비 후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정당의 경우 전략공천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각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10 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들을 압축·발표했다.

후보자는 전희재(전주 갑), 정운천(전주 을), 김성진(전주 병), 체육복(군산), 김영일(익산 갑), 박종길(익산 을), 김성균(정읍 고창), 김용호(남원임실순창), 김효성(김제 부안), 신재봉(원주진안무주장수)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산과 익산 갑·을 원주진 안무주장수 선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후보들을 내세웠다.

확정 선거구는 김윤덕(전주 갑)과 최형재(전주 을), 김성주(전주 병), 김준진(김제부안), 박희승(남원임실순창), 하정열(정읍고창) 등 모두 6곳이다.

경선 지역은 원주진안무주장수(박민수, 안호영)의 경우 이르면 16일 오후, 익산 갑이 춘석·한병도(은)은 17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단수 및 경선 지역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군산과 익산은 선거구 2곳은 경선과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전략공천일 가능성이 크다.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정당은 단연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이 확정한 단수공천 지역은 정동영(전주 병), 유성엽(정읍고창), 김관영(군산) 후보 등 3곳에 불과하다.

아날까지 발표된 국민의당 도내 경선 지역은 총 5곳으로 전주갑과 익산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다.

이 가운데 전주 갑은 김광수, 강동호, 이기동, 이관승 후보로 압축됐으며 전주을은 장세환과 엄운상, 김호서 조형철, 한명규 후보가 중앙당의 경선 일정 등을 기다리고 있다.

익산 갑·을 선거구는 늦어도 17일 저녁이면 최종후보자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익산 갑은 배승철 전 도의원과 고상진 국회



“농업과 농민을 살리자”

정의당 농민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세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선대위원, 농민 예비후보자들이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4대 혁신농정’ 20대 총선 농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 교통복지 ‘전국 최하위권’

보행자·고령자·어린이 사고율 9위 ‘불명예’

전북이 교통복지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발표한 전국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교통여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이 교통여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70%)와 민족도 조사(30%)에서 경북에 이어 가장 낮은 순위로 평가됐다.

특히 여객시설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10개 시·도의 평균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하순위로 평가됐다.

전북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주변 접근로로 행환경 보행자 사고율 고령자 및 어린이 사

고율이 각각 전국 9위로 랭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저상버스 보급률은 5위, 교통복지 행정은 6위를 차지하며 관계 당국은 만족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 이용빈도가 높은 여객지동차터미널과 버스정류장의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통여자 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 매일 INDEX

2면 김종인 “총선 실패하면 당 떠날 수밖에”

4면 풍남문화광장, 복합문화공간으로 새탄생

‘청소년의 아름다움의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 6회 전국 청소년
마술 경연 대회**

그동안 청소년 마술 동호인들의 전폭적인 관심 속에 개최되었던 전국 청소년마술 경연대회가 올해로 6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과 전주매일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일 시 : 2016. 3. 26 (토) 15:00 ~
장 소 : 전주 풍남문화광장 5F 비전홀
주 최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공동주관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대회 참가문의 : 전주매일 문화사업국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연금 사각지대 줄고 있지만…

어르신 10명 중 6명

“노령연금 못받는다”

연금 사각지대가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어르신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노령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1세 이상 어르신 893만명 중 노령연금 등의 연금을 탄 수급자는 38.3%(342만명)에 그쳤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1990년이 되어서 전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아직 제도의 역사가 짧고 덜 여물어 전 국민이 노후보장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 제도가 정착하면서 61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은 2010년 31.4%에서 2011년 32.9%, 2012년 34.3%, 2013년 35.8%, 2014년 37.0%로 매년 오르고 있다.

공단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연금수급자 비율은 2020년 41%로 뛰고 2030년에는 절반인 넘는 5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입자의 소득과 기입기간이 제각각이다보니 받는 연금액이 편지도 크다.

지난해 수급자의 월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35만원이 있는데 최저액은 6만7000원, 최고액은 187만원에 달했다.

연금액이 가장 적은 수급자는 제도 초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을 주는 특례 노령연금 가입자로 5년간 월 1만3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냈다.

반면 광주에 사는 A씨(65)는 월 최고 연금액인 187만원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5년간 연금지급을 연기했다.

연기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월 최고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인천에 사는 노령연금수급자 B(61)씨로 월 154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108세 C씨다. 그는 국민연금 기가입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았다.

C씨를 비롯해 2015년 12월 말 현재 100세 이상인 수급자는 47명으로 월 평균 약 23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여성은 39명으로 남성(8명)보다 5배 많다.

최장기 수급자는 장애연금수급자 D씨로 총 보험료 16만원을 납부하고 1989년부터 20년 11개월 동안 9500여 만원을 받았다.

D씨처럼 1989년부터 26년 이상(32개월) 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는 수급자는 총 113명이었다.

총 수령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충남 공주에 사는 장애연금수급자 F(66)씨로 보험료 13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1996년 8월부터 총 19년 5개월 동안 2억4000여 만원을 받았다.

/인진수 기자